

# 서울시, 전기차 2.2만대 보급… 승용차 보조금 최대 745만원

전환지원금으로 최대 130만원 혜택  
차상위·청년에 국비지원 20% 추가  
중·대형 화물차까지 지원 대상 확대

서울시는 전기차 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하고 수송 부문 탈탄소를 앞당기기 위해 올해 총 2만2526대의 전기차 보급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전기차 전환지원금 신설, 중·대형 화물차 및 소형 승합차 지원 확대를 통해 전기차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민간 보급 물량(2만2409대) 중 상반기 보급 물량을 차종별로 보면 ▲승용차 1만500대 ▲화물차 1200대 ▲택시 840대 ▲승합차 158대 ▲어린이 통학 차량 21대 등이다.

서울시는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전환지원금(최대 130만원)을 신설하고, 차종별 맞춤형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해 시민들의 구매 부담을 대폭 낮출 계획이다.

또한 충전속도, 주행거리, 배터리 효율 등 성능이 우수한 전기차에는 보조금을 우대 지원해 제조사의 기술혁신과 자율



ChatGPT에 의해 생성된 전기차 도입을 통한 환경보호 실현을 표현한 이미지.

적인 가격 인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 ◆승용·택시 보급 물량 확대

전기승용차는 차량가격과 보급대수에 따라 최대 754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전환지원금과 각종 추가 보조금을 합하면 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더욱 늘어난다.

지난 1일 이후 기존 내연기관차를 처분(매매 또는 폐차)하고 전기차(승용·화물)를 구매하는 개인에게는 전환지원금

으로 국비 100만원과 시비 30만원을 더해 최대 13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단, 3년 이상 보유 차량에 한해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간 증여·관매는 제외한다.

또한, 차상위 이하 계층과 청년 생애 최초 전기차 구매자에게는 국비 지원액의 20%를 추가 지원하고,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 지원한다.

택시는 승용차 보조금에 더해 택시 전

용 보조금 250만원(국비 192만원, 시비 58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한 운행거리가 긴 점을 고려해 배터리 보증기간이 5년 또는 35만km 이상인 경우 시비 1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 ◆중·대형 화물차 신규 지원

전기화물차는 기존 소형(1톤 이하) 중심에서 벗어나 올해부터 중·대형 화물차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되며, 소형 최대 1365만원, 중형 5200만원, 대형 7800만원까지 지원된다.

소형 전기화물차 중 생활권 중심으로 운행하는 택배차량에 대해서는 100만원(국비 지원액의 10%)을 추가 지원하고, 기존 경유화물차 폐차 및 6개월 영업 요건이 폐지된다.

또한 제조·수입사가 차량가격을 50만원 할인할 경우 시비 50만원을 추가 지원해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택배차량의 경우 50만원을 더해 최대 150만원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기승합차(버스)는 각각 최대 대형 승합 1억원, 중형 승합 7000만원, 소형 승합 1950만원 지원한다. 올해부터 소형 승합차 지원을 신설해 보급차종을 다변

화한다. 법인·개인사업자는 한국환경공단에서, 개인은 기존과 같이 서울시에서 보급한다.

전기차 신청은 오는 26일부터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이며,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정한다.

구매희망자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제작·수입사가 서울시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출고·등록 순으로 지원 대상자가 선정된다. 보조금은 차량 출고 및 등록 후 서울시가 제작·수입사에 직접 지급하며, 구매자는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전기차 1만 9081대를 보급해 누적 보급량이 12만 대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신규 등록대수의 7.9%, 서울시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 기준 3.4%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전기차 보급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효과는 약 22만 톤 CO<sub>2</sub>eq로 이는 연간 소나무 약 158만 그루를 심는 것에 맞먹는 효과이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 삼성·SK 계약학과 정시지원 늘고, 의약학계열은 줄었다

대기업 계약학과 전년비 38.7% ↑  
의약학계열 지원자는 24.7% ↓  
상위권 자연계 ‘특수 지원분야’ 인식

2026학년도 대입 정시에서 의약학계열 선호가 꺾이며 지원이 줄어든 반면, 상위권 자연계 수험생들의 ‘취업 연계’ 선택은 더 뚜렷해져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대기업 계약학과 지원자가 전년 대비 40% 가까이 늘었다.

18일 종로학원 분석에 따르면 2026학년도 정시 대기업 계약학과 전체 지원자는 2478명으로 전년 1787명 대비 38.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의약학계열 지원자는 24.7% 감소해 대비를 이뤘다.

대기업 계약학과는 기업과 대학이 협

약을 맺고 운영하는 선발 방식으로, 최근 자연계 최상위권 학생들 사이에서 선호도가 높아지는 분위기가 뚜렷하다는 분석이다. 학과 신설과 모집 확대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성적 최상위권에서도 계약학과를 하나의 ‘특수 지원 분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기업별로 보면 삼성전자 계약학과 전체 지원자수는 1290명으로 전년 대비 6.5% 증가했다. SK하이닉스 계약학과 지원자수는 320명으로 전년 대비 12.7% 늘었다.

대기업 계약학과 경쟁률도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기업별 경쟁률은 ▲삼성전자 13.44대1 ▲SK하이닉스 9.14

대1 ▲삼성SDI 46.17대1 ▲LG유플러스 8.75대1 ▲LG디스플레이 7.00대1 ▲카카오엔터프라이즈 5.55대1 ▲현대자동차 4.71대1 등이다.

삼성전자 연계 계약학과와 경쟁률을 보면 과학기술원 중심으로 쏠림이 두드러졌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반도체공학 89.00대1 ▲울산과학기술원(UNIST) 반도체공학 59.20대1 ▲광주과학기술원(GIST) 반도체공학 50.20대1을 기록했다. 일반대학에서는 ▲고려대 차세대통신 6.70대1 ▲성균관대 지능형소프트웨어 6.25대1 ▲연세대 시스템반도체공학 5.84대1로 집계됐다.

SK하이닉스 연계 계약학과는 ▲한양대 반도체공학 11.80대1 ▲서강대 시스템반도체공학 9.00대1 등으로 나타났다.

템반도체공학 9.00대1 ▲고려대 반도체공학 7.47대1 등으로 나타났다.

2026학년도에는 신설 학과에도 지원이 집중됐다. 삼성SDI 연계 성균관대 배터리학과는 2026학년도 신설학과로 경쟁률 46.17대1을 기록했다.

종로학원은 2025학년도 감소에 대해 의대 모집정원 확대에 따른 일시적 하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봤다. 즉 2026학년도 급증은 이전 상승 흐름이 다시 강화된 결과로 읽힌다는 것이다.

정시 선발 인원 역시 ▲2022학년도 78명 ▲2023학년도 140명 ▲2024학년도 178명 ▲2025학년도 183명 ▲2026학년도 194명으로 매년 늘었다.

일부 대학에서 지원자 감소가 나타난

배경은 선호도 자체의 하락보다는 선발 구조 변화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종로학원은 성균관대 반도체시스템공학과와 경우 정시 선발 인원이 5명 감소한 점을, 한양대 반도체공학과는 2026학년도에 정시 전형이 수능 100%에서 수능 90%·내신 10%로 변경돼 내신 비중이 증가한 점을 지원자 감소의 요인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대기업 계약학과는 매년 확대되는 추세다. 대학들이 대기업 계약학과 신설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향후 상위권 자연계 학생들에게 별도의 특수 지원 분야로 형성되는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기존 운영 대학들의 유사 분야에서는 전체 지원자가 증가하면서도 대학별로는 분산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신설학과 개설 시 특정 학과로 지원이 몰리는 경향도 확인되고 있다.

/이현진 기자

## 용인FC, 프로축구연맹 프로리그 가입 승인

2026시즌 K리그2 진출 최종확정

용인시 ‘용인FC’의 K리그2 진출이 최종 확정됐다.

용인FC(구단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는 16일 열린 한국프로축구연맹 2026 K리그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프로리그 가입 승인을 받으며, 2026시즌 K리그2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2026시즌 K리그2는 용인FC, 김해FC 2008, 파주 프런티어FC 등 신규

가입 3팀을 포함해 총 17개 팀 체제로 운영된다.

용인FC는 지난해 8월 프로리그 가입 조건부 승인 이후 홈경기장 시설 개선, 사무국 조직, 유소년 시스템 구축,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출연금 확보 등 프로구단으로서의 기반을 단계적으로 갖춰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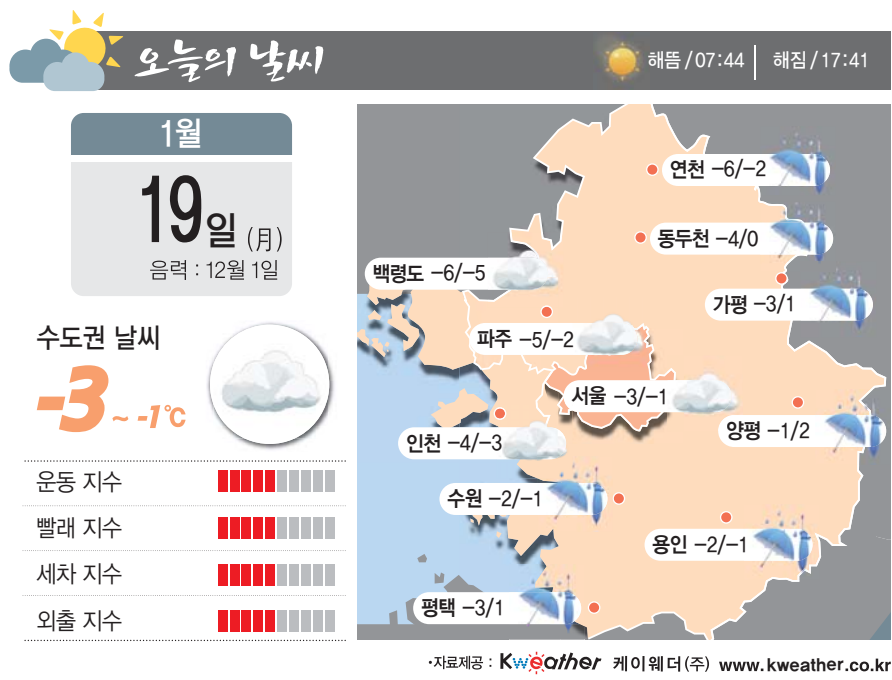
이러한 준비 과정을 통해 단기간 창단한 구단이라는 한계를 넘어 안정적인 지속 가능한 시민프로축구단 운영 모델

을 구축했다.

특히 구단은 사무국 조직 역량 강화와 선수단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기존 조직 운영에 특화된 인력에 전문성을 갖춘 프런트 인력을 더해 안정적인 체계적인 구단 운영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동국 테크니컬 디렉터, 최윤겸 감독을 선임하며 행정·기술·현장을 아우르는 리더십 체계를 완성했다. 여기에 유럽파 출신 전 국가대표 석현준을 비롯해 국가대표 경험이 풍부한 김민우, 신진호, 임채민, 최영준 등 베테랑 선수들을 대거 영입하며 팀의 중심을 빠르게 구축했다.

/용인(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日여야, 조기 총선 앞두고 대비 서둘러…식료품 감세 공약 부상  
▲인도, 프랑스 전투기 114대 추가 구매…공동 생산도 추진  
/사진 뉴시스

▲美함정 2척 대만해협 통과에 中 “추적·감시…고도 경계 태세”  
▲中, ‘ICE 시민 총격’ 美미네소타 자국민에 주의 촉구…“신분중 소지”

▲트럼프, 소셜미디어에 자신 사진 올리며 “관세 왕”  
▲이스라엘, 美가자 집행위 구성에 반대 목소리…“이 정책에 반대”